

200자 안내

여름의 외출

브리짓트 로자르 지음 / 바다저작권번역부 옮김
국내에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불란서 여류작가의 청소년기의 사랑과 갈등을 내용으로한 장편소설. 부모와 떨어져 고독해 하는 소녀 조에가 여름방학을 맞아 절친한 친구인 조의 식구들과 노르망디의 휴양지에서 겪는 일들이 섬세하고 깔끔하게 그려져 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세종출판공사 / A5신 / 246면 / 3200원

더블 맨

게리 하트 외 지음 / 김성종 옮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에서 여비서와의 스캔들로 좌절해야 했던 정치인이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쓴 이색적인 장편추리소설. 대통령을 꿈꾸는 상원의원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 소설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저질러진 국무장관 가족의 살해사건을 추적하면서 폭로되는 KGB의 음모를 흥미롭게 파헤치고 있다.

남도 / A5신 / 348면 / 3800원

이성근 STOP 영어회화 1

이성근 지음
현재 버클리대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저자가 '회화문법'의 개념에 중점을 두어 엮은 회화시리즈 중의 첫째권. 언어표현의 구성과 관계를 파악, 외우는 능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이 책은 5개의 Lesson과 4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는 20여개의 동사와 전치사 등을 적절히 사용하면 회화에 필요한 좋은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쟁기출판기획 / A5신 / 240면 / 3800원

생활체조

김윤규 글 / 손재식 사진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없이 소파나 베개, 벽 등 가까이 있는 생활도구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생활체조'를 소개한 책. 한국사회체육센터 생활체육국장인 저자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엮어진 이 책은 여러 종류의 생활체조 요령과 동작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대원사 / B6신 / 120면 / 2800원

조국은 하나였다?

양한모 지음

조선공산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직에 있으면서 1949년 9월 폭동을 주도했던 저자가 고회를 맞아 펴낸 자서전. 일제치하에서의 공산주의 운동과 해방, 6·25를 겪으며 변신을 거듭, 결국 종교에 귀의한 파란만장한 일생의 발자취를 담담한 필치로 솔회하고 있다. 책말미에는 1981년 10월부터 23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실었다.

일선기획 / A5신 / 292면 / 3800원

모과상

아르망 라누 지음 / 정봉화 옮김

노르망디 지방의 어부들의 생활, 전쟁체험담, 사교계의 비화 등을 형상화하여 단편소설의 정수를 보여줬던 19세기의 대표적인 작가 기 드 모과상의 전기. 1850년 노르망디 지방에서 태어나 「여자의 일생」 「비계덩어리」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기며 자연주의 문학의 최고봉이 된 모과상의 굴절 많은 일생을 그리고 있다.

정음문화사 / A5신 / 408면 / 3800원

어느 사형수 아저씨에게

이상배 외 지음

아동문단에서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인 동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 씨래동인의 제10집. 그동안 실험적 작품들을 주로 발표, 난해성 시비를 받기도 한 동인 아홉명의 중편동화와 장시를 모았다. 송남선, 김관식, 조명계, 이창진 등 4인의 동시 28편과 이상배, 양점열, 김영훈, 손기원, 이영 등 5인의 동화 5편이 수록되어 있다.

동화문화사 / A5 / 122면 / 2000원

상사꽃 아버지

김후란 외 지음

김후란, 홍운숙, 구혜영, 박순녀, 오정희, 김초혜, 노향림, 이병원, 염정임, 유혜자, 문혜영, 권일주, 김옥섭, 반숙자 등 여류문인 14인이 털어놓는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형식을 빌어 작가 자신들이 지닌 아버지 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들을 넉넉한 감성과 따뜻한 이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려내고 있다.

언어문화사 / A5신 / 210면 / 3000원

군중심리

구스타브 르봉 지음 / 전남석 옮김

군중의 심리가 역사의 원동력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주제로 하여 군중의 정체를 역사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시대평론적 성격의 책. 1895년 출간되어 현재까지 30개 국어 이상의 번역본이 나온 현대의 고전이다. 사회심리학으로 주로 사회학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정치학, 역사학, 종교, 교육문제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문명비판서이기도 하다.

동국출판사 / A5신 / 262면 / 3500원

유명인의 별난 삶

김선 펴냄

술로 벗어난 무수한 기행을 남긴 수주 변영로, 공초 오상순, 김삿갓, 김소월, 한용운 등 유명인 9인의 별난 삶의 행적들을 모았다.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들의 별난 삶의 편린들은 기성화된 가치와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삶을 수용하는 신선한 자극을 맛보게 한다.

에이엠 / A5신 / 196면 / 2800원

幹部의 自己管理學

무라다 노부오 지음 / 김영국 옮김

기업 경영 간부들의 자기관리 지침서. 오늘날 기업의 사장들이 바라는 간부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사상과 뜻이 맞지 않는 간부의 전형을 제시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일상의 태도, 성격과 기질, 인생관이나 인간성, 금전감각이나 여성관계, 일의 능력과 자세, 부하 관리 방식, 사장을 대하는 태도 등 상세한 예를 들어 이해를 용이하게 했다.

신세대 / A5신 / 300면 / 4600원

우리 뿌리의 風俗圖

김종권 지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근거한 우리 조상들의 다양한 풍속과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성격에 따라 4장으로 분류하여 묶었는데 제1장에서는 양속가풍을, 제2장에서는 악풍과 기담을, 제3장에서는 설화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정견과 민속을 소개하고 미풍의 계승발전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덧붙였다.

정통 / A5신 / 238면 / 3200원

내 아내의 남편을 찾습니다

폴 오스터 지음 / 정성호 옮김

탐정소설적인 구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현대 미국문학에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폴

오스터의 세번째 소설. 원제는 「The Locked Room」이다. 아름다운 아내와 걸작소설을 남긴채 실종된 친구 '팬쇼'의 자취를 찾아 나선 '나'의 궤적을 통해 인간 내부에 숨어 있는 타인의 존재, 자기 자신에의 불투명성 등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다.

문학사상사 / A5신 / 218면 / 3200원

부처님 이마에 담뱃재를 털며

스티븐 미첼 엠티 / 류시화 옮김

한국 선불교의 최고봉인 경허와 만공선사의 법통을 이어받고 서양으로 건너가 한국 최초의 선사가 된 송산이 미국의 대학생을 깨우친 백가지 이야기. 미국의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오직 모를 뿐'이라는 메시지와 동등이 30방으로 깨우치며 나는 송산선사의 선문답은 복잡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명쾌하고 신선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청맥 / A5신 / 314면 / 3800원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

미우라 아야코 지음 / 김수동, 심소자 옮김

'빙점'의 작가로 잘 알려진 저자의 신작 장편 소설. 일본 최초로 드라이클리닝을 성공시킨 이가라시겐지의 인생역정을 그린 실화소설이다. 15세에 가출하여 인생 밑바닥을 전전하다 신앙을 얻고 세탁업에 투신한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삶과, 신앙을 통해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다는 자세는 참된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청림 / A5신 / 314면 / 3800원

피할 수 없는 슬픔, 그러나 결코 절망해서는 안됩니다

필릭 지음 / 최현 옮김

미국의 저명한 여류작가인 저자가 정신박약 아인 딸을 키우며 체험한 눈물겨운 이야기.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인간은 영원히 짐승 이상의 존재'임을 재확인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기의 딸과 같은 생명이 헛되지 않기를, 또한 피할 수 없는 슬픔을 지닌 사람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려 한다.

오죽헌 / B6 / 128면 / 2000원

지금도 나그네 되어도 사랑의 바다에 가리니

미우라 아야코 지음 / 지영란 옮김

저자가 13년 동안의 투병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신앙과 그것에 근거하여 새롭게 인식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쓴 에세이 모음집.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원천은 신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신앙의 기초 하에서 인간

의 방향, 삶, 사랑, 믿음 등 진지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잔잔하면서도 신념에 찬 어조로 적고 있다.

가람문학사 / A5신 / 274면 / 3500원

정보를 알면 내집이 생긴다

내집마련 상담실 엮음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위한 총 정보지.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밝은 사회를 위한 모임'에서 운영하는 '내 집마련 상담실'에서 퍼냈다. 최신 아파트 분양, 내 집마련 자금 대출, 부동산 상식 등 주택마련 정보를 총망라,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는 이 책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가져야 할 철학으로 의지, 정보,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하늘땅 / 변형 / 144면 / 3300원

계간지

민음동화(창간호)

[세계의 민화] 서정주

[프랑스 장편동화] 집시소녀의 머나먼 길(산드라 자야 / 심민화)

[창작동화] ▲황금연못(정채봉) ▲세상에서 제일 큰 눈사람(윤후명)

[시] ▲난 어린애가 좋다(천상병) ▲산그늘(유경환)

[어린이글] 낭이의 글

[바위그림과 마법의 세계](박상순)

[한국 아동문학 무엇이 문제인가](최창숙)

[유럽의 청소년 문학과 출판(서독편)](조영호)

[동화를 통한 어린이 철학 교육](박민규)

[공포 없이 키운 세대에 품는 희망](최성각)

[왜 어린이가 폭력적으로 되는가](김경희)

민음사 / B5신 / 164면 / 5000원

학술지

국어학(제19호)

▲현대국어 음운론의 허와 실(강창석) ▲통시 음운론 연구사와 국어음운사 연구 30년(박창원) ▲국어 어휘론 연구사(조항범) ▲借字表記 研究와 訓民正音의 文字論의 研究에 대하여(이승재) ▲이론 수용과 통사론의 전개(김영희) ▲국어 문법사 연구 30년(1959-1989)(이현희)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홍중선) ▲어휘의미의 이념적 요인에 대하여(김홍수) ▲국어 분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임지룡) ▲담화내용표지의 의미연구(신현숙) ▲조선월의 화행(구현정)

국어학회 / A5신 / 480면 / 10000원

생성문법연구(제1호)

▲자연언어의 인허원리(김양순) ▲비논항결속(심양희) ▲관계적 배분이론(최재웅) ▲최대통어개념의 정의에 관하여(한학성) ▲Some Remarks on Agreement and Incorporation(Ken Hale) ▲On Reflexives(Myung-Yoon Kang) ▲A Unified Theory of control in English(Young-Sun Kim) ▲Barriers and the ECP(Byung-Choon Lee) ▲On Parametric Syntax(Masayoshi Shibatani)

한국언어학회 생성문법연구회 / A5신 / 270면 / 6000원

現代와 宗教(제13집)

[특집] 노동자와 경영자의 대화-바람직한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해서-

▲노동개념의 철학적 이해 ▲21세기를 향한 노동운동의 좌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고찰 ▲노사관계의 성숙화를 위한 진단과 대책

[논문] ▲한국초대개신교회와 미국의 극동정책(김기달) ▲대구지방 침례사 연구(박정규)

▲Andragogy이론에 기초한 청장년 성인교육을 위한 모델(최상학) ▲기독교와 전통차의 만남에 관한 시론(백종철) ▲A study of the Ecumenical Movement in Korea(Yong Woo Park)

▲토인비 사상과 한국-유교문명권의 장래(이상기) ▲비교도덕이론에 대한 시도(高橋進 / 최재천) ▲함허현정론의 서설을 중심하여(한경희) ▲한국정치사상연구1-민주주의 사상을 중심으로(이인곤)

현대종교문화연구소 / A5신 / 286면 / 3000원

현대종교문화연구소 / A5신 / 286면 / 3000원



자료집

英國著作權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엮음



저작권의식의 확대와 연구자료 제공을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장인숙)가 연속적으로 펴내고 있는 '저작권관계

자료집'의 제6권 「英國著作權法」이 발간됐다.

1988년 11월 상·하원의 심의와 국왕의 재가를 거쳐 이듬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1988년 저작권·의장·특허법' 중 저작권에 관련되는 부분을 발췌번역한 이 책은 특히, 1956년 이후 30여년간 적용됐던 구 저작권법에 비해 저작권법에 관한 논리적 일관성과 현대화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선진국 저작권법제의 한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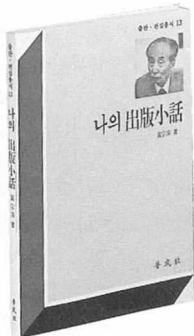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과 연구원들이 번역을, 장인숙위원장이 감수를 맡아 펴냈다. 권말에는 한·영 저작권용어대조표를 수록.

저작권심의조정위 / A5신 / 196면 / 5000원

이색출판

나의 出版小話

黃宗洙 지음



일제 말기인 1941년 서울 관훈동에서 일성당서점을 경영하는 한편, 해방후에는 일성당 및 연학사 등의 출판사를 창업하고 출판협회

부회장 및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 출판서적상계에서 개척자적 역할을 했던 황종수씨의 '出版小話'을 한데 모은 책이 나왔다.

1984년부터 「출판문화」지에 '나의 출판인 시절'이란 제호로 연재했던 글들을 수록한 이 책은 해방을 전후한 한국출판계의 실상들을 소상히 밝히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 이외에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출판계 원로로서의 애정어린 제언들도 함께 수록돼 있어 특징적이다.

“일제, 해방, 건국, 자립,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한 시대”를 살아온 목격자의 자세로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것이 저자의 말.

보성사 / A5신 / 218면 / 6000원

화제의 책

朝鮮의 鬼神

村山智順 지음



조선총독부 촉탁이었던 일본인 민속학자 村山智順이 저술, 1929년에 간행됐던 「朝鮮의 鬼神」이 최근 동문선과 민음사 두곳서

거의 동시에 번역돼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역자는 각각 김희경씨와 노성환씨.

울초 역간때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조선의 풍수」의 저자이기도 한 村山の 이 책은, 「풍수」와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 식민지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조사된 연구보고서라는 점에서 한계를 결함을 갖지만, 한국전래의 귀신관과 귀신퇴치법 등에 관한 광범한 민간 자료를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학문적 의의를 평가받기도.

두 출판사의 판본 모두 원저의 사진자료들을 빼지 않고 수록했으며, 민음사판에는 민속학자 최길성의 해제가 곁들여져 있다.

동문선 / A5신 / 472면 / 10000원

민음사 / A5신 / 516면 / 10000원